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들어올리다'(휘프쑌오)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희망을 잃어내었습니다.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들어올려지는 것을 실패가 아닌 승리의 상징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시편에서도 하느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올라가시는' 하느님을 묘사하는데, 신약은 이런 하느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오르심'으로 연계해서 이해합니다(시편 68,19;에페 4,8). 우리 신앙인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올려지는' 희망을 끊임없이 간직하는 이들입니다.

♣ 주일학교 9월 개학: 9월 21일

♣ 모임 / 회의

- 사목회의: 오늘(14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성모회 회의: 9월 21일(차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울트레야 하반기 모임: 9월 20일(토) 10:00, Assago 사무실

♣ 2025년 이탈리아 한인체육대회

- 10월 4일(토) 10:00 ~ 18:00
- @ Sport Village Assago(Via Giuseppe Di Vittorio, scn 20090 Assago)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7.51€ • 교무금 200.00€

전례 성가

입당 : 122 (구원의 십자가)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69 (사랑의 성사)
 파견 : 490 (십자가에 가까이)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7일)	다음 주일(9월 14일)
1독서: 이민찬 비오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2독서: 윤지영 베레나	2독서: 우윤정 마리아
복 사: 김사빈 엠마, 강윤아 헬레나	복 사: 안태오 마태오, 정이한 다윗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9월 14일

(홍)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지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천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금처럼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1독서 (민수기 21,4L-9)

4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5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6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7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8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9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6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복음 (요한 3,13-17)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움이신 주님,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화합과 연대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지구촌 곳곳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돕고자 앞장서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주님,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굽어살피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사회의 관심과 이웃의 나눔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저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